

# 여성노인의 자존감\*

최 지 선\*\* · 김 귀 분\*\*\*

## I.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여성의 평균 수명이 남성보다 높음에 따라 65세 이상의 노령 인구 중 여성의 비중은 점차 늘어가고 있으며, 노년기의 생활 또한 남녀 평균수명의 차이로 인하여 성별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는 사실이 여러 가지 사회 현상학적 관찰에서 확인되고 있다.

특히, 오늘날의 여성 노인은 전통적 효 사상의 와해, 배우자 상실, 전통적 지식의 중요성 감소, 사회적 은퇴로 인한 경제적 의존성 등으로 역할 갈등 및 상실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노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상실의 경험들은 자존감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Lee, 1995; Stevens, 1965; Taft, 1985).

자존감은 노인의 정신 건강 요구를 이해하는데 중요하며(Whall, 1987), 정신건강의 기초가 되고 질적인 삶을 유지시켜 주는 기반이 되므로, 노인의 자존감을 이해하는 것이 그들의 성공적인 노화와 삶의 만족을 누리며 생애를 마치게 하는데 필수적이다( Song & Park, 1992).

그 동안 국내·외에서는 자존감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졌지만, 양적 연구가 주로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간호학에서 널리 이루어지고 있는 양적 연구는 인간을 너무 단순화하고 의미를 박탈하여 경험세계에서의 본질을 발견하는데 한계가 있다(Kim 등, 1999).

따라서, 인간 경험의 본질을 실체적으로 연구함에 있어 인간의 경험을 있는 그대로 보고 그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인간이 경험하는 현상의 의미를 밝히려는 현상학적 접근은 인간을 통합된 전체(Unitary Whole)로 보는 간호의 인본주의적 신념과 일치하며(Leininger, 1974; Munhall, 1982; Oiler, 1986; Omery, 1983), 간호과학과 인본주의간의 상호의존과 상호관련성을 살릴 수 있는 연구방법으로, 인간 존재의 본질에 대해 연구하는데 알맞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현상학적 접근을 통해서 여성노인의 자존감의 의미를 확인하고, 그 의미구조를 밝힘으로써 성공적인 노화와 인생 만족을 누리며 생애를 마치게 하기 위한 간호중재 수립을 위한 구체적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여성노인에 있어서의 자존감을 근원

\* 본 논문은 2002년도 경희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요약임.

\*\* 강남 경희 한방병원 간호사

\*\*\* 경희대학교 간호과학부 교수

투고일 2002년 5월 30일 심사회의일 2002년 6월 3일 심사완료일 2002년 8월 24일

적으로 규명하기 위함이며, 이에 따른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여성노인의 자존감의 의미를 확인한다.
- 2) 여성노인의 자존감의 의미구조를 기술한다.
- 3) 여성노인의 자존감의 의미구조를 중심으로 간호중재 방안을 모색한다.

## II. 연구 방법

###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여성노인의 자존감에 대한 의미구조를 확인하기 위하여 질적 연구방법 중 현상학적인 접근법을 사용하였다.

### 2. 연구참여자 선정

본 연구의 참여자는 65세 이상의 서울 거주 여성노인으로, 지역사회외 건강한 여성노인을 대상으로 하기 위하여 병원이나 시설의 보호를 받지 않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해 선정하였다.

- 1) 연구목적에 이해하고 연구에 참여하기를 허락한 자.
- 2) 의사소통이 가능하며 사고나 판단의 흐름이 명료하고, 일관성이 있는 자

연구 참여자의 수는 자료가 포화상태(Saturation)에 이르는 총 6명의 여성노인으로 하였다.

### 3. 연구자 훈련과정

본 연구에서 사용할 현상학적 접근은 연구자가 연구도구로서, 참여자의 생생한 경험을 기술하는 것이므로 연구주체에 적합한 심층면담 및 참여관찰의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연구기법에 대한 보다 완벽한 준비가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를 계획하면서 질적 간호연구 학점을 이수하고 질적 연구와 관련된 학회 및 학술대회에 참석하여 학문적 확장을 도모하였으며, 신뢰관계 형성 및 면담 기술에 대하여 지도교수의 지도하에 지속적인 훈련을 받으면서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 4. 자료수집 기간 및 방법

자료수집기간은 2001년 5월부터 자료가 완전히 포화

상태에 이른 2001년 9월까지였다. 본 연구에서 참여자의 경험세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연구자와 참여자 사이에 상호 호혜적인 신뢰감과 친근감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연구를 시작하기 전까지 구립 문래 노인정과 영등포 노인종합복지관을 중심으로 대상자를 선정하여 신뢰감과 친근감을 형성한 참여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연구참여자와는 심층면접과 참여·관찰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참여자와의 면담시 대화내용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참여자의 양해하에 녹음기를 사용하였다. 면담시 질문은 비구조적이고, 개방적인 질문 형태로, “00씨와 관계되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등의 의도적으로 연구자가 원하는 답을 유도하거나 암시를 주지 않도록 하면서 참여자가 경험을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도록 하였으며, 질문내용은 알고자하는 내용을 직접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대화로 시작하면서 대화의 폭과 깊이를 넓혀나갔다. 즉, 일상생활에 관한 내용, 최근의 근황, 과거 삶의 회상 등을 이야기하는 동안 중요한 부분의 내용을 발췌, 메모하였다가 의미가 모호한 부분은 다시 질문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핵심이 되는 내용이 나올 경우라도 참여자의 대화에 끼어 들지 않으며, 이야기가 끝났을 때 구체적인 질문을 통해 확인하고, 부족한 내용은 다음 면담시 질문하였다. 면담에 소요된 시간은 1회 30분에서 3시간 30분으로 다양하였으며 평균 1시간 30분 정도였고, 평균 면담횟수는 4-5회였다. 면담시에는 참여자가 원하는 장소와 시간을 미리 정하도록 하였으며, 되도록 조용한 장소로 정하여 면담 도중에 방해받지 않도록 하였다.

### 5. 자료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여성노인의 자존감의 실체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이용하였으며, 보다 전체적인 감각을 유지하기 위하여 Giorgi(1970)가 제안한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 1) 기술문을 중심으로 여러 번 읽으면서 곰곰이 생각한다.
- 2) 사고를 시작하고 끝내는 단위, 즉 참여자의 말 그대로 자신의 경험을 표현한 기술의 단위를 중심으로 어휘는 다르지만 본래의 의미단위(natural meaning unit)를 규명한다.
- 3) 이러한 의미단위에서 참여자의 말로 표현된, 참여자의 경험을 나타내는 요소가 될 수 있는 주제(themes)를 규명한다.

- 4) 연구자의 언어로 주제를 구체화하기 위해서 참여자의 경험이 참여자에게 의미하는 중심의미(focal meaning)를 연구자의 언어로 규명한다.
- 5) 중심의미를 통합하여 각 참여자의 관점에서 파악된 살아있는 경험의 의미인 상황적 구조적 기술(situate structural description)을 만든다.
- 6) 상황적 구조적 기술문을 통합하여 전체 참여자의 관점에서 파악된 살아있는 경험의 의미인 일반적 구조적 기술(general structural description)을 만든다.

이상의 분석방법을 통하여 확인된 의미기술이 연구참여자의 의미와 일치하는 지를 확인하기 위해 연구참여자에게 되돌려 직접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원자료에 의해 확인된 의미구조는 질적 연구방법을 연구하는 간호학 전공교수의 자문을 받았다.

### III. 연구수행과정에 따른 윤리적 고려

본 연구를 진행하기 위하여 연구 참여자에게 연구의 목적을 자세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후에 실시하였다. 질적 연구는 연구 참여자와 밀접한 관계가 형성된 후에 그들의 내면 세계를 파악하여 기술하기 때문에 그들의 사생활 노출이 불가피하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면담 내용을 연구목적에만 사용할 것이며, 또한 참여자의 신분 및 신상에 대해서도 전혀 공개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였다. 또한 연구도중이라도 연구 참여를 거부할 권리가 있음을 충분히 설명하였다.

### IV. 연구결과 및 논의

#### 1. 여성노인의 자존감에 대한 의미구조

여성노인들의 자존감에 대해 연구자가 심층면담 및 관찰하여 기술한 기술단위로부터 주제와 중심의미를 찾아내고 이것에서 각 참여자의 상황적 구조적 기술을 제시하였다.

##### 1) 상황적 구조적 기술

사례 1. 김 ○ ○ ( 81세 ), 천주교, 5남

5형제를 둔 참여자는 오랜 세월동안 노름이나 하는 무능력한 할아버지를 대신해 쌀장사를 하여 가정살림을 꾸려나갔다. 몇 년 전까지도 장사하고 오는 것까지 의심하며, 무시하는 태도와 함께 잦은 구타를 일삼아 이혼도

생각했었지만 자식들을 생각해서 참고 살아왔다. 이제는 손녀, 자녀, 며느리의 섬김과 인정을 받으며 자녀의 성공을 통해 만족감을 느끼고 있고, 속상함도 남아 있지만, 미운 정이 들어 자식보다 낫다고 표현하며, 전셋집에서 할아버지와 단 둘이 살고 있다. 자녀에게 의지하지 않는 경제적 자립을 통해 스스로에 대한 관리능력을 높이며 상당 활동도 하면서 노인정에 나와 부회장의 직책에 최선을 다하며 여러 할머니들과 어울리며 생활하고 있다.

사례 2. 정 ○ ○ ( 74세 ), 천주교, 2남 2녀

많이 배우지 못함에 대해 강한 아쉬움을 가진 참여자는 학력차이가 나는 배우자를 어려워하였으며, 사업실패와 함께 5년 정도 남편의 외도로 경제적, 정신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냈다. 5년 동안 자녀들만을 바라보며 어려움을 이겨 나왔으며 현재, 자녀들의 성장 이후 되돌아온 할아버지에게 속상함은 남아 있어도 이해하려고 노력하며 단 둘이 살고 있다. 자녀들에 대한 애정이 각별한 참여자는 자녀들에게 미안해하며 안타까운 마음을 나타냈다. 그래도, 현재의 삶에 만족하고 남은 여생에 대해 준비하며 할아버지와 함께 복지관을 다니면서 노년의 여가를 즐기고 있다.

사례 3. 구 ○ ○ ( 67세 ), 무교, 1남 2녀

27년간 시아버지와 남편의 지지를 받으며 교직생활을 한 참여자는, 며느리의 사회 생활을 이해하지 못한 시어머니와는 다소 갈등이 있었다. 교직생활로 인해 1남 2녀를 직접 돌보지 못하기 때문에 미안한 마음은 가지고 있지만 자녀들의 자립심을 중요시 여기며 교육하였다. 50세에 일찍 퇴직한 참여자는 같은 시기에 남편도 함께 퇴직하여 자유로운 생활을 즐기며 자기개발을 위해서 스스로 찾아다니며 적극적인 생활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

사례 4. 김 ○ ○ ( 67세 ) 기독교, 2남, 사별

젊었을 때, 노점에서 장사하는 걸 창피하게 여긴 참여자는 억척같이 벌어 이제는 살만큼 산다며 만족해하고 있다. 어렵고 꿈꿨던 할아버지와 살면서 아들만 둘 있는데 따로 떨어져서 살고 있으며, 할아버지도 6, 7년간 앓다가 97년에 돌아가셔서 참여자 혼자 살고 있다. 자녀의 성공만을 기원하며 친자식처럼 잘해주려고 하지만 쉽지 않은 며느리에게 서운함을 느끼는 참여자에게서 자녀들로부터 보살핌을 받고 싶어함을 알 수 있다. 능력의 한계를 솔직히 인정하며 거리낌없는 생활을 하는 참여자는 아프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스스로에 대한 관리능력을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례 5. 이 ○ ○ ( 89세 ) 무교, 5남매, 사별

젊어서 5남매와 함께 혼자된 참여자는 고생하며 키운 자녀의 성공을 통해 자아확인 하고 있으며 89살의 연세에도 노인정의 주방 일을 하면서 타인으로부터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 억척같이 일해서 노후의 경제적 자립이 준비되어 있는 참여자는 현실에 만족하며 자신의 수의까지 준비하는 생활을 통해 스스로에 대한 관리능력을 유지해 가고 있다.

사례 6. 방 ○ ○ ( 72세 ) 기독교, 4남 1녀, 사별

평안북도 정주가 고향인 참여자는 피난 시절, 할아버지를 만나 결혼하여 5남매를 낳아 키우면서 시어머니 시집살이를 심하게 하였고, 잘 살지 못하는 친정으로 인해 더욱 기죽으며 마음고생을 하였다. 할아버지의 사업실패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고생하다가 아이들 교육하고 결혼

시켜서 살만할 때, 할아버지가 직장암으로 4년을 투병생활 하다가 돌아가셨다. 어려운 시절에 다니기 시작한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며 성실한 신앙인으로서, 현실에 만족하며 죽음도 담대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준비하는 생활을 하고 있다. 아들 셋은 외국에 떨어져 살고 있지만 며느리의 섬김을 받으며 딸과 함께 외손녀를 돌봐주며 노후를 보내고 있다.

2) 일반적 구조적 기술

6명의 연구 참여자들이 기술한 내용을 중심으로 확인한 상황적 구조적 기술을 통합하여 여성노인의 자존감에 대한 일반적 구조적 기술을 나타냈으며, 이는 <표 1>과 같다.

<표 1> 여성노인의 자존감

중심의미	주 제	원자료
자녀로 부터의 섬 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손녀들이 나한테 잘해.</li> <li>· 우리 작은아들이 지금은 외국에 가 있어도 한 달에 20만원도 보내고,</li> <li>· 우리 아들 착해서...우리 아들이 참 잘해요. 1주일마다 그그 식구들 데려와 가지고 종일 있다 가고 3일마다 한 번씩 오고 언제든지 몸 안 좋으면, 연락하면 달려오고</li> <li>· 결혼 조건이 우리 부모님 모실 수 있어야 된다. 조건이 첫 째 조건이었어. 그렇지 않으면 안 한다고.</li> <li>· 아이들이 참, 다...음...순종하고, 음...뭐, 이렇게...반대하지 않고.</li> </ul>
	자녀로 부터의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 자식들도 다 알아.....엄마가 뭐라도 이렇게 해서 우리 집이 잘 되나간다는 것을 알고 있어.</li> <li>· 우리 아들들이 우리 엄마가 최고래...죄우간 최고는 아니지만 내 자식들이 최고라고 하니까 그게 고맙지..</li> <li>· 우리 작은아들은, 절대 내가 무식하고 배우지 못했지만은 그렇게 말 안 해. 우리 어머니 존경스럽고, 녀의 어머니가 대학원을 나왔다 해도, 우리 어머니 국민학교 밖에 못 나와도 전혀 창피하지 않다고 해.</li> </ul>
인 간 관 계 를	자녀에게 만족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들들이 용돈 주면 나 이거 안 주어도 행복한테, 느그가 이렇게 잘 해주는 것만도...돈, 이것은 나 안 주었으면 좋겠다고 얘기해.</li> <li>· 저희가 열심히 살아서 저축도 하고, 해서 조금한 것 샀고, 조금해도 남의 전세보다는 편하잖아. 그래 불만 없이 다 지금 행복하게 살아요.</li> <li>· 돈은 없지만 저희를 먹고사는 것 해결되고, 사니까 그거 뭐 내가 걱정한다고 갑자기 내가 돈을 몇 억씩 갖다 줄 수도 없는 거고,</li> </ul>
	통 한 자 아 확 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중한 거라고 자손들 번성하고 잘 사는 거지, 뭐를 더 바라겠어.</li> <li>· 요즘도 자기 전에 누어 생각하면 되게 행복해. 우리 손자들도... 우리 자식들이 상타오면 벌벌 떨리고 너무 좋고,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하고, 어떤 말로 녀한테 자랑을 좀 할까...</li> <li>· 자식을 가르칠 때도 게가 가서 대학교에 붙었을 때 그 희열감이라고는 말 할 수 없이 좋고.</li> <li>· 사위하고 딸이 동네에서 어찌 잘하는지 동네 부락에서 두 내외가 모범으로 뽑혔어.</li> <li>· 외손도 다들 잘 되고, 친손도 그렇게 잘 된다고...</li> </ul>
자녀로 부터의 보살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 큰아들 없었으면 못 살았을 거야.</li> <li>· 난 내가 그렇게 기분이 안 좋아서 있으면 큰딸한테 전화를 해.</li> <li>· 지금은 딸 좀 있으면 좋겠어. 아무래도 딸이 엄마한테 잘하잖아. 뭐, 혼자 쓸쓸하지. 딸이라도 있었으면...</li> <li>· 즈그가 이 답애라도 죽으면 책임을 지겠다. 뭐 이런 거 생각하니까, 참...며느리가 소중해서. 나중애라도 내 죽으면 즈그가 책임질 거 아니야.</li> <li>· 어떨 때는 전화도 안 오고 그러면 요것들이 나는 즈그한테 한다고 했는데, 또 이렇게 전화도 안 하나 그러고 속상할 때도 있어.</li> </ul>
	자녀를 위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식을 보고 이래 살지 싶어서...내가 맘 잘못 먹으면 우리 가정이 무너지잖아. 그래, 자식 생각만 하고 뭐라도 하고 살지.</li> <li>· 용돈 주면 쓰기가 쓰지만, 모다 두었다가 도로 목돈 되면 돌려줘.</li> <li>· 애들 데리고 고생해도 내가 벌어 먹이고 산다고 이를 깨물고 살았지.</li> <li>· 자식들이 저희들이 살겠다고 한 훈이라도 더 벌어보겠다고 그러는데, 나도 같이 해주어야지. 나 편하자고 안 하겠다는 건 말이 안되지.</li> </ul>

<표 1> 여성노인의 자존감(계속)

중심의미	주 제	원자료
인 간 관 계 를 통 한 자 아 확 인	자녀에 대한 안타까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모가 너무 몰라서 병신을 만들었는가 싶은 생각하면 진짜 저한테 말은 못해도 수시로 가슴이 메이지.</li> <li>· 척추 때문에 시집 못 가고, 한 평생 연애 한 번 걸지 못하고 저렇게 한 평생을 후회하며 살다 없어지는가. 이 좋은 세상을...그래, 가슴이 아파 진짜, 또 우리 작은딸은 시집을 갔는데...애기를 못 낳아.</li> </ul>
	자녀에 대한 미안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나는 내 마음으로 모든 정성과...말하자면 내 생명하고 바꾸어야 하면 서슴없이 할 수 있는데...그런 것 말고 물 질적인 것으로 풍족해서 하나도 구김 없이 살 게 할 수 없었던 것...</li> <li>· 일하는 사람한테 맡기고 나가니까 개네들이 따뜻한 정을 못 받지 않았냐...그게 항상 나는 미안하고.</li> <li>· 그게 자식들한테 지금까지도 미안해. 일을 하나도 붙들어 주지 못해서 미안하고...그 대신, 가끔 손녀딸이 오면 내가 못했던 거 그 애들한테는 줄려고 하지.</li> </ul>
	며느리에 대한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감이니까 싸움도 하고 또 욕도 하고 나쁜 소리도 할 수 있지만...자식한테, 며느리한테 그러면 안 되잖아.</li> <li>· 아들은 내 자식이니까 뭐라 해도 되는데, 며느리는 생전 안 뭐라 그래.</li> <li>· 어떻게 어려워서 가르치나...그냥 내버려두지...그게 지도 좋고, 나도 좋고. 어려와...</li> <li>· 어려와, 자식이라도 어려워서 어려운 말은 절대로 안하고...갖난애 다루듯 그렇게 오냐오냐...그래야지.</li> </ul>
	며느리로 부터의 섬 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어미가 잘해준다고 자랑하고 지도 어머님 고맙다고 자랑하고.</li> <li>· 며느리들도 다 착하고 해서 하나도 불편하거나 하는 게 하나도 없어. 너무 좋아.</li> <li>· 내가 시어머니이지만 저희들하고 대화를 하고 시장을 가도 팔짱을 끼고 가고, 그렇게 사이가 좋을 수가 없어. 우리는, 고부간의 사이도 그렇게 좋아</li> </ul>
	어려운 고부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어머니랑 같이 사니까 항상 놀려 사는 기분이라. 왜 마음으로 그런 고통을 겪. 시키지 않아도 항상 놀려 있거 든. 어깨가 무겁거든. 따로 살면 해방을 하게 되는데...왜? 저대로 살게 두지...</li> <li>· 아침에 일어나서 어머님이 흘끗 한 번 쳐다보면 그만 기가 죽어 가지고...</li> </ul>
	배우자와 함께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그래도, 있어야지. 뭐 자식보다는 낫다고...</li> <li>· 사람이 배고파봐야지 배고픈 걸 안다고...할아버지가 있으니까 그냥 친구같이...</li> <li>· 그래 가지고 늙으니까 굉장히 소중한데. 나 혼자 살 생각을 하니까...안 계시면...</li> <li>· 병 수발 될 때가 좋았지...누워만 있어도 살아 계시는 게 낫지. 옆에 있는 게 낫지. 할아버지 없으니까 어디 상 의 할 때가 없고.</li> <li>· 혼자 이렇게 있는 날이면 아무래도 더 생각도 나고, 노랑...</li> <li>· 그래도 돈 안 주고 할 때는 밉더니. 지금이라도 방에 아파서 그냥 거동 못하고 똥오줌 받아내더라도 집에 살아 있으면 좋겠다.</li> </ul>
	배우자의 자상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 영감님이 딱... 자상해.</li> <li>· 자상한 거는...인자, 애들 다 컸고...자기 회개하는 마음인지 잘해요.</li> <li>· 지금 청소도 다 해주고 집안 일 다 해주지. 참 좋은신 양반이야. 난 생전 집안 일이라고는 몰라. 가만 보니까 아들이 그걸 다 배우게 생겼어</li> </ul>
	배우자에 대한 신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나는 살림은 다 그이한테 맡겼거든. 돈 살림을...그러니까 은행에도 내가 가지 않고, 쓴다고 하면 돈 척 주는데 뭘? 이려고 저려고 할 게 없지.</li> <li>· 사람이 믿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알어?</li> <li>· 우리 집 양반은 그래도 지킬 건 지켜줘서...</li> <li>· 그래, 할아버지가 다 알아서 하니까, 신경 안 쓰고, 편할 때도 있지.</li> </ul>
	배우자에 대한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가 한 고비에, 우리는 그 때 우리 영감이 그래서...좀 속상했지.</li> <li>· 그 때는 그게 너무 막 분하고 속상했는데...</li> <li>· 할아버지가...조금..좀 꼬뽀해요. 좀 꼬뽀해 가지고 돈 같은 것도 이렇게 안 주면, 아이고, 없으면 내가 마음대 로 돈 쓰고 좋겠다. 그랬는데, 막상 없어서 내가 돈을 가지고 쓰면은... 아휴..</li> </ul>
	배우자에 대한 속상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말이라도 좋게 하지 못하고 나를 이렇게 속상하게 하고...</li> <li>· 씨팔년..... 막 욕을 해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싸울 수도 없고 옆 사람들에게 남사스럽고, 이웃 사람들에게도 남사스럽고.</li> <li>· 같이 죽어도 절대 니 아부지하고 함장은 하지 말아라 하고 얘기했지.</li> <li>· 두 늙은이가 살고 있기는 해도 정이 없고 나는 니대로 나는 니대로 그저 남 보기 좋은 듯하게 이렇게...</li> </ul>
까다로운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할아버지가 꼭 시어머니 같지. 매사에 어렵지. 그래 어른 대하듯이 했지.</li> <li>· 반말도 안 해 봤어. 어찌다 무슨 말 하다가 반말하면 반말한다고 성질내. 존댓말 해야돼. 내외간에 너, 나 하고 반말하고 사는 거 보면 쟁피하고 어쩔 때는 부럽더라고</li> </ul>	
배우자로 부터의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누가 옆에서 말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신랑이 날 깔보고 날 아무도 없다고</li> <li>· 아버지는 있어도 남자니까 와도 아무 말 안하고, 그래, 신랑이 날 깔보고 더 뭐라 그러나 보다 싶었지.</li> </ul>	

<표 1> 여성노인의 자존감(계속)

중심어미	주 제	원자료
인 간 관 계 를 통 한 자 아 확 인	배우자에 대한 배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 남편이 바람피고 그런 말 넘한테 하면 혹시 내 남편을 가짜게 보고, 알볼까 싶어서, 절대로, 아무리 내 속이 녹아 내린다고 해도 나만 참지, 말 안 해야지</li> <li>· 내가 여자인데...내가 참아야지...남자한테 이기면, 다른 사람들이 남자를 얼마나 깔보겠나 싶어서...동네 사람들 보면 창피하니까 내가 참을 건 참아야지. 뭐 어떡해...난, 남들한테 여자들이 이기는 것 보면 싫더라고....</li> <li>· 저 집 신앙은 그래도 여자한테 대우받는다 그래야지. 저 집 신앙은 맞고 산다고 하면 돼? 그건 안되지....</li> </ul>
	타인으로 부터의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사람들이 안 알아주잖아.</li> <li>· 장사도...가게 차려놓고 번 듯이 하면은 창피하지 않지만...</li> <li>· 지금은 돈이 조금 있으니까 못 차리고 가도 마음이 좀 든든하고...</li> <li>· 구 의원이 와서 상장 줬잖아. 상장이라도 뭐 아무 것도 아니야. 기분이지.</li> <li>· 사람들이 다 내 덕이라고 그래, 어쨌면, 아들, 딸들을 그렇게 길러 가지고 다들 시집보내서 그렇게 잘 되냐고...</li> <li>· 그래 가지고 사람들이 더 아단이었지. 더 위해주고, 지금도 그 부락에서 날 보고 최고라고, 대단한 양반이라고...</li> </ul>
바람직한 대인관계 유지	현실에 대한 만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복지관 같은데서 애인 하나 사귀라고 해도 난 애인 안 사귀다고 했어.</li> <li>· 싫어, 그냥 싫어... 할아버지가 늙어서 그런지 사람들 사귀면 젊은 사람들하고 사귀고 싶지 늙은 사람하고 사귀고 싶지 않아.</li> <li>· 어려운 얘기는... (한참 말없음) 그냥, 친구들한테 더러... 친구도, 적당한 친구 있으면... 그래, 가끔 가다 그런 말해서 하소연하는 거지. 그래, 사는 거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살아나움이 정말 열심히 살았어.</li> <li>· 난 딸도 있고, 아들도 있고 나이가 70대 인데 영감 있으니까 이걸로 만족하고...</li> <li>· 그거 다 견디고 나니까 지금 넘한테 하나 거리낌없고.</li> <li>· 밥 세끼는 먹어. 우리 연금만 타도.</li> <li>· 지금 이것을 최상의 행복으로 생각해. 더군다나 남 보다 15년을 일찍 그만두었어.</li> <li>· 남한테 꾸러 안 가고 내가 그래도 넘을 하나라도 자식이고, 넘이고, 주고 사니까 아무 후회없어. 좋아. 아주 만족해. 그냥 만족해</li> <li>· 지금 편하지...가만 앉아 있어도 밥 먹을 수 있고...그게 호강하는 거지.</li> <li>· 저희들 건강하고, 또 애들이 용돈 주니까 나 쓸 만큼 쓰고 나하고 싶은 교회 생활, 하느님 믿고...이렇게 사니까 하나도 세상적으로 저기가 없잖아</li> </ul>
스 스 로 에 대 한	한계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 할아버지가, 나도 그렇고 둘 다 배운 게 없어서.</li> <li>· 남보다 못 배도 있지. 많이 못 배웠으니까..좀 배웠으면 잘 알텐데...그런 걸 못 배웠으니까...</li> <li>· 늙은이가 고집 피우면 안 되잖아. 이제는 내가 잘못하면 안 되는 것도 알고 다 살고...</li> </ul>
	자기과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까짓 것 못하면...이것보다 더 한 어려움도 겪었는데...이런 마음이면 아무 것도 어렵게 없어.</li> <li>· 내가 선생을 했으니까, 또 그런 건 잘하지. 코치를.</li> <li>· 교사 생활을 해 가지고 좀 잘난 척한다고 해야되겠지?</li> <li>· 너무 남한테 못 할 짓은 안 하지. 그런 있지.</li> <li>· 나 살아온 건 이렇게 평탄하게 살아왔는데 남을 미워할 줄 모르는 거 그게 흠이야</li> </ul>
관 리 능 력	자립적 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무도 안 괴롭히고 살다가 가야지.</li> <li>· 자식한테도 짐이 되지 말고.</li> <li>· 밥이라도 먹을 정도면 너한테 기대지 않는다. 왜? 부모한테 잘 하는 건 물론 잘해야 하지만, 기본을 지켜야 하지만...자식을 노상 들볶을 필요는 없어.</li> <li>· 누구한테 기대고 싶은 생각이 없어. 그래서 누구, 꼭 기대면은 눈치를 봐야 하잖아.</li> <li>· 든든한 것만 빼고는 자식에게 신세 안 질려고 하는 세상인데.</li> </ul>
	아프지 않도록 유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제는 내가 제일 중요해. 내가 안 아프고, 내가 건강해야 자식들이 근심을 안 하지.</li> <li>· 자기 몸을 잘 다스리는 것이 자식한테 잘 하는 길이고.</li> <li>· 아프지만 않으면 어딜 가도 마음대로 땡기고 그게 뭐 제일 좋은거지. 건강이 제일 거스리지.</li> <li>· 내 몸 안 아프기만을 바라지...</li> </ul>
나눔하는 생활	거리낌 없는 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뭐라도 잘해 가지고 똑같이 평등하게 편하게 살다 죽자 이 마음 한가지 가지고 이렇게 나와서 봉사하는 거야.</li> <li>· 배고픈 사람 있으면 밥 한 그릇은 사 줄 수 있고, 또 누가 쌀이 없어서 막 헤맨다 그러면 쌀 한 되 사 줄 수 있어.</li> <li>· 아주 불쌍한 사람 있다면 쌀 한 되라도 베풀 수 있는 기회가 왔으면 좋겠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가 먹고 살만하다, 넘보면 부럽지 않다 할 때는 하다못해, 슬리퍼 짝을 끌고 가도 기분이 그만큼 아무 거리낌없고.</li> <li>· 머리 고대가 어디 있어? 그냥 속속 빗고 가도 창피한 줄도 모르고, 부럽지도 않더라고, 없이 사니까 이후, 잘 못 해 가면 창피해서 어떡하나 생각이 들어서 머리 고대하고 웃도 챙겨 입고 그랬는데...</li> <li>· 지금은 집에서 입는 대로 나가. 뭐, 창피하지 않고 하니까...</li> </ul>

<표 1> 여성노인의 자존감(계속)

중심 의미	주 제	원 자료
자유로운 생활		· 뭐 어디에 속해서 구속을 받기 싫은 사람이야. 이제는 내 인생을...
		· 마음대로 할 수 있니까...
감사하는 생활		· 친구들하고 뭐 놀러도 가고 혼자...
		· 아들들은 오라 그러는데 그래도 어떡해. 혼자 있는 게 좋고 가고 싶지는 않고.
자기 개발적 생활		· 이제 남은 여생을 오로지 주님 믿는 거로, 주님 원하는 대로 살고 싶습니다.
		· 그저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싶은 바램밖에 없으니까...
스스로에 대한 관리 능력	기본을 지키는 생활	· 하느님이 원하는 삶을 사느구나 알게 되니까, 세상 그런 것 하나도 안 부러워. 오로지 주님 감사할 뿐이야.
		· 하느님 믿으니까 더 뭐든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생겼어.
준비하는 생활		· 낮으로는 복지관 다니고, 또 저쪽에 노인교실 다니고.
		· 복춤도 배우고, 장구는 복지관에서 배우는데...
노력하는 생활		· 여행을 가도...선생들...꼭 교육자들하고 같이 가지. 그런 사람들하고 가면 꼭 배울 점이 있어. 레벨이 조금 높은 층하고 가야 대화가 통하고.
		· 지금도 교직생활하고 있는 기분이야. 그러니까 마음이 젊다는거야. 그래서 어디든지...내가 찾아다니면서.
경제적 자립		· 좋은 사람 소리를 자주 들어서 공부를 해야지.
		· 사람들하고 살면서 자기 자신을 너무 세우면 사람한테 거부 반응을 일으켜.
경제적 자립		·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잖아.
		· 자기 양심을 지키고 살아가면은 기본 질서, 그게 기본 질서지?
경제적 자립		· 선생을 할 때도 내 월급을 모아서 재산을 모았지. 밖에서 뭐 이런 걸로는 절대 플러스를 안 시켰어
		· 이제는 죽을 때가 되어서 내가 깨끗하게 살다 죽어야지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경제적 자립		· 난 이미 우리 애들한테 유언까지 다 해 냈지.
		· 이제 갈 준비를 해야지. 나를 위해 살다가 떠날 때는 미련 없이 떠나야지. 공적으로 받으면 모두 환원시켜야 돼.
경제적 자립		· 정리를 해서 받은 건 환원시켜야지.
		· 내가 삼베를...우리 아들 혼자서 일 하는데 먹을까봐 내가 죽을 옷을 다 해왔어. 시골에서 베를 담귀 가지고 빨아서 집에서 내 옷을 했지. 동네 사람들이 다 모였지. 내 옷 한다고 하니까. 그 옷 할 때도 사람들이 다 복 노인이라고 그랬지.
경제적 자립		· 죽는 것도 담대하게 받아들일 수 있으니 얼마나 좋아요. 그 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
		· 세상은 고생 안하고는 그렇게 행복감을 느낄 수가 없어. 고생 안하고 가질 수 있는 건 없어.
경제적 자립		· 세상에 일은 다 자기가 찾아서 해야지 누가 안 해줘. 그러니까 그것만 알고 살으면 돼.
		· 그거 다 내 일이다. 누가 해 주는 건 없다. 해주면 고맙큼 주어야 하니까.
경제적 자립		· 만일에, 자식들이 나 돈 좀 줘라. 그랬는데 만일에 아들이 돈을 안 준다. 그러면 얼마나 한심하고 눈물날거야.
		· 뭐 돈이 있으니까 한 달에 한 번씩 너가 한 번 사고 내가 한 번 사고...
경제적 자립		· 한가지...돈은 없으면 안 된다. 자식들 암만 키워놓아도 돈이 없으면 안돼 내가 돈이 있으니까 인제라도 내가 자식들한테 큰 소리 치고 뭐도 하고 하지. 숨이 떨어질 때까지 돈은 있어야 되겠어.
		· 건강도...돈이 있어야 내 건강을 차리지.
경제적 자립		· 제일 중요한 건 (웃으며)돈이지 뭐.
		·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되는데...돈 없으면 그것도 못 하잖아.

여성노인의 자존감을 나타내는 중심 의미 중의 하나는 <인간관계를 통한 자아확인>이며, 이는 자녀로부터의 섬김, 자녀로부터의 인정, 자녀의 성공, 자녀에게 만족함, 자녀로부터의 보살핌, 자녀를 위함, 자녀에 대한 안타까움, 자녀에 대한 미안함, 며느리에 대한 어려움, 며느리로부터의 섬김, 어려운 고부관계, 배우자와 함께 함, 배우자의 자상함, 배우자에 대한 신뢰, 배우자에 대한 이해, 배우자에 대한 속상함, 배우자로부터의 인정, 까다로운 배우자, 배우자에 대한 배려, 타인으로부터의 인정, 바람직한 대인관계 유지의 21가지 주제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존감은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자신에 대한 명확한 인식에서 발전하게 되는데(Meleis, 1971), 노년기에는 많은 상실감과 함께 생활 세계가 사회 중심에서부터 가정이나 이웃, 사회단체, 종교단체 중심으로 전환하게 되므로 이들에게 중요한 타자는 배우자, 자녀, 친척, 좋은 친구로 바뀌게 된다(Larson, 1978). 본 연구에서도 자녀, 배우자, 며느리, 다른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자아를 확인함을 알 수 있으며 자녀들로부터 인정과 섬김을 받으며 가정 내에서의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고,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갖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자녀들로부터 보살핌과 배우자로부터 인정

받고 싶어함을 나타내고 있는데, 노년기의 역할 상실로 인해 초래되는 정체감 위기에 대한 지지원으로서의 배우자의 중요성은 여러 연구에서 강조되어졌다. Frerich (1973)은 자존감은 결혼상태에 영향을 받는데, 특히 기혼여성의 자존감이 높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Schaffer & Keith(1981)는 기혼자들의 경우 배우자의 태도가 중요한 영향요인이라고 하였다. 부부가 함께 하고 있는 여성 노인인 경우 본 연구에서도 배우자의 태도가 중요함을 확인하였으며 본인 스스로도 배우자를 이해하고 배려함을 통해 배우자의 역할을 잘 수행하려함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마음고생을 하면서도 배우자를 배려하는 모습에는 타인들로부터의 업신여김이나 약하게 보임을 싫어하여 참고 인내하는 우리 나라 고유의 체면을 중요시 여기는 문화적 영향의 일면도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Staurt 등(1984)도 자존감이란 자신의 능력, 성공여부, 중요성 등 자신의 가치에 대한 개인적 판단으로 자신이 얼마나 훌륭했는가를 분석함으로써 얻어진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자녀의 성공을 바람하며 그들의 성공을 통해 대리만족감과 성취감을 느끼고 있고, 자녀들에게 충족시켜 주지 못했던 부분을 손자에게 대신 해 주려함도 알 수 있다. Newman은 성공적인 노화를 위해서는 새로운 역할을 찾아야만 한다고 하였는데, Arling (1976)은 친구들과의 역할활동은 노인으로서의 자존감에 대한 가치와 효용을 경험하게 하고 긍정적인 감정을 갖게 하기 때문에 친밀하고 우호적인 친구관계를 가진 노인에게서 노년기의 심리적 안녕 상태가 높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바람직한 대인관계를 유지하여 자아를 확인하려함을 알 수 있었다. 이처럼 여성노인들은 여러 인간관계를 통해서 부모, 조부모 역할, 배우자 역할, 단체성원으로서의 역할, 친구의 역할을 하면서 자존감을 유지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여성노인의 자존감에 대한 또 다른 중심의미는 <스스로에 대한 관리능력>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현실에 대한 만족, 한계인정, 자기과시, 아프지 않도록 유의, 자립적 생활, 자유로운 생활, 나눔하는 생활, 거리낌없는 생활, 노력하는 생활, 자기 개발적 생활, 기본을 지키는 생활, 준비하는 생활, 경제적 자립, 감사하는 생활의 14 주제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은 다른 연령층과는 달리 특유한 사회 심리적·신체적 욕구를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특유의 욕구와 노년기의 사회 심리적 변화를 이해하고 적응하여 자존감이

증진된 노인은 자신의 지나온 일생을 후회 없이 수용하고 현재 생활에 만족하며 과거-현재-미래 사이의 조화된 견해를 가지며 궁극적으로 앞으로 다가올 죽음을 인정하고 기다리는 태도를 갖는다고 하였다(Erikson, 1963).

본 연구에서도 현실에 대한 만족을 느끼면서, 참여자들이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해 준비하는 생활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생활 만족과 자존감에 대하여 Linn & Hunter(1979)는 자존감이 높은 노인들이 실제 그들의 나이보다 젊게 느끼고 삶에 만족한다고 하였다. 많은 연구에서 건강도 자존감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변인으로 건강상태가 나빠질수록 노인의 역할은 독립적인 것으로부터 의존적인 것으로 전환하게 되며 개인의 독립성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현대사회에 살고 있는 노인들을 당혹하게 함으로써 정체감을 위협하게 된다(Jeffers, Nichols & Eisdorfer, 1961). 참여자들을 통해서 건강에 유의하는 생활을 유지하며, 신체적 불건강으로 인해 자녀에게 의존하지 않는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생활의 영위를 바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경제적 자립을 통해서 스스로에 대한 관리 능력을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많이 배우지 못함으로 인한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인정하고 끊임없는 자기개발적 생활을 통해 노력하며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눔하는 생활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외에도 자존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종교활동이 있는데(Krause, 1995; Yurick et al., 1984), 종교 활동이 활발하거나 성숙된 종교 신념을 가진 노인에게서 자존감이 높게 나타난다고 하였고, 참여자를 통해 신앙인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감사하는 생활을 통해 자존감을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종교에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의 내적 신념을 믿으며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 거리낌없는 생활을 하면서, 자기의 가치와 능력을 스스로 인정하며 남보다 낮다 느끼며 자기 과시함을 통해 스스로에 대한 관리능력을 유지하고 있음도 나타내고 있다.

## 2. 여성노인의 자존감에 대한 간호중재

1) 가족이나 친구와의 인간관계 속에서 자아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도록 한다. 고령이 되어갈수록 가장 중요한 관계는 가족관계가 되므로, 함께 하는 배우자나 가족 구성원들과의 애정적 유대관계를 강화하고, 가정 안에서의 위치와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2) 노년기는 서로가 의지하면서 동반자적 관계를 유지하고 부부역할에만 충실할 수 있는 시기이므로, 노부부만의 동거형태를 장려하고, 노년기의 배우자 역할을 강조하며, 부모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조부모의 역할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무엇인가에 공헌할 수 있다는 긍정적 사고를 가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어야 한다.
- 3) 홀로 있는 여성노인들의 경우에, 가까운 이웃끼리의 지지체계나 적당한 종교단체, 또는 노인정이나 노인 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회활동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자원봉사단체나 'senior 클럽'과 같은 사회적 지지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도록 한다.
- 4) 스스로에 대한 관리능력을 높일 수 있는 간호중재가 이루어져야 한다. 최소한의 복지연금의 혜택을 통해 경제적 안정을 꾀하거나 무료 건강 관리 센터를 운영하는 등의 구체적인 노인 복지가 정부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간호 연구를 통해 구체적 정보와 지식을 소유하고 있어야 하고, 다른 전문 단체와의 유대적 관계도 필요할 것이다.
- 5) 가족 구성원을 통한 유대강화가 어려운 경우는 지역 사회를 중심으로, 노년기의 스트레스 관리법, 운동요법, 영양 섭취 등에 대한 간호학적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건강을 유지, 증진 할 수 있도록 하고, 다양한 사회 프로그램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자기 개발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격려하고 정보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 6) 노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면서, 종교활동을 통해서 공동체 의식을 갖게 하고, 삶의 의미와 죽음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노년기의 많은 상실감들을 위로 받으며, 수용할 수 있는 심리적 안정을 가질 수 있도록 격려해 주도록 한다.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여성노인의 자존감의 살아있는 경험을 파악하고, 그 의미 구조를 확인, 기술하여 이것을 중심으로 간호중재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질적 연구 설계인 현상학적 연구 방법을 사용하여 시도되었다. 연구참여자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문래 노인정과 영등포 노인 종합 복지관의 여성노인으로 2001년 5월부터 9월

까지 심층면접과 참여, 관찰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분석은 Giorgi(1970)가 제시한 현상학적 분석방법을 이용하였으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여성노인의 자존감의 중심 의미로는 1)과 2)로 나타났다.

- 1) 인간관계를 통한 자아확인
  - ‘자녀로부터의 섬김’, ‘자녀로부터의 인정’, ‘자녀의 성공’, ‘자녀에게 만족함’, ‘자녀로부터의 보살핌’, ‘자녀를 위함’, ‘자녀에 대한 안타까움’, ‘자녀에 대한 미안함’, ‘며느리에 대한 어려움’, ‘며느리로부터의 섬김’, ‘어려운 고부관계’, ‘배우자와 함께 함’, ‘배우자의 자상함’, ‘배우자에 대한 신뢰’, ‘배우자에 대한 이해’, ‘배우자에 대한 속상함’, ‘배우자로부터의 인정’, ‘까다로운 배우자’, ‘배우자에 대한 배려’, ‘타인으로부터의 인정’, ‘바람직한 대인관계 유지’의 의미들로 구성되어 있다.
- 2) 스스로에 대한 관리능력은
  - ‘현실에 대한 만족’, ‘한계 인정’, ‘자기과시’, ‘아프지 않도록 유의’, ‘자립적 생활’, ‘자유로운 생활’, ‘나눔하는 생활’, ‘거리낌없는 생활’, ‘노력하는 생활’, ‘자기 개발적 생활’, ‘기분을 지키는 생활’, ‘준비하는 생활’, ‘경제적 자립’, ‘감사하는 생활’등의 의미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상에서 나타난 여성노인의 자존감은 자기 자신보다는 자녀, 가족, 이웃, 친지 등에 의해 표출되고 있으며 자녀에 의한 여성노인의 자존감은 삶의 전부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누구의 도움 없이, 특히 자녀에게 짐이 되지 않도록 자기 스스로를 개발하여 남은 여생을 영위할 수 있을 때 그들의 자존감이 유지, 보존됨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점차 여성화되어 가는 노령 사회에서, 여성노인의 성공적인 노화를 위하여 자신의 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모임과 교육을 실시하고 스스로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회와 국가적 차원의 구체적인 지지프로그램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References

- Arling, G. (1976). Resistance to isolation among elderly widows.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3(1), 66-87.
- Erikson, E. H. (1963). *Child and society*(2nd ed.). New York: W. W. Norton & Co.
- Frerichs, M. (1973). Relation of self-esteem and

- internal-external control to selected characteristics of associated degree nursing students. *NR*, 22(4), 350-352.
- Giorgi, A. (1970). *Psychology as a human science*. New York: Harper & Row.
- Jeffers, F. C., Nichols, R., & Eisdorfer, C. (1961). Attitude of older persons toward death: A preliminary study. *J of Gerontology*, 22(1), 100-106.
- Kim, B. H., Kim, K. J., Park, I. S., Lee, K. J., Kim, J. K., Hong, J. J., Lee, M. W., Kim, Y. H., Yoo, I. Y., & Lee, H. Y. (1999). A comparison of phenomenological research methodology: focused on Giorgi, Colaizzi, Van Kaam methods. *J Korean Acad Nurs*, 29(6), 1208-1220.
- Krause, N. (1995). Religiosity and self-esteem among older adults. *J of Gerontology*, 50(5), 236-245.
- Larson, R. (1978). Thirsty years of research of the subjective well being of older americans. *J of Gerontology*, 33(1), 109-129.
- Lee, H. R. (1995).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steem and self care practices of the elderly*.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en University, Seoul.
- Leininger, M. (1974). *Health care issue*. Philadelphia: F. A. Davis Co.
- Linn, M. W., & Hunter, K. (1979). Perception of age in the elderly. *J of Gerontology*, 34(1), 46-52.
- Meleis, A. I. (1971). Self-concept and family planing. *NR*, 20(3), 229-236.
- Munhall, P. L. (1982). Nursing philosophy and nursing research: In apposition or opposition. *NR*, 31, 176-181.
- Newman, & Newman (1979). *Development through life: Psychosocial approach*. Dorsey press.
- Oiler, C. J. (1986). *Qualitative methods: Phenomenology*. P. Moccia(ed.), *New approaches to theory development*. New York: NLN.
- Omery, A. (1983). Phenomenology: A method for nursing research. *advanced in Nursing Science*, 5(2), 49-63.
- Schaffer, R. B., & Keith, P. M. (1981). A comparison of depression among employed single-parent and married women. *J of psychology*, 110, 239-247.
- Song, D. H., & Park, H. K. (1992). A study on the self- esteem for the korean aged. *J of the Korea Gerontological Society*, 12(1), 79-96.
- Stevens, M. K. (1965). *Geriatric nursing*. Philadelphia: W. B. Saunders Company.
- Stuart, F. Q., Colin, R. B. & Larry, E. B. (1984). Sleep disturbance in the elderly. *Geriatrics*, 39(9), 42-47.
- Taft, L. B. (1985). Self-esteem in later life: A nursing perspective. *Advances in Nursing Science*, 8(1), 77-84.
- Whall A. L. (1987). Self-esteem and the mental health of older adults. *J of Gerontological Nursing*, 13(4), 41-42.
- Yurick, A. G., Spier, B. E., Robb, S. S. & Ebert, N. (1984). *The aged person and nursing process(2nd)* Norwalk, Conneticut: Appleton-Century-Crofts, Inc.

- Abstract -

## The Self-esteem of Elderly Women

Choi, Ji-Seon\* · Kim, Kiwuy-Bun\*\*

Purpose: This study was to identify nursing interventive strategies centering around the meaning structure of elderly women self-esteem.

Method: This study is based on a phenomenological approach. The participants

\* Kangnam KyungHee Oriental Hospital Nurse

\*\* KyungHee University College of nursing science Prof.

were 6 women over the age of 65 selected in Mullae Senior Club or Yeongdeungpo Senior Welfare Center. The data was collected by in-depth and open-ended interviews from May to September, 2001. The analysis of the data was used the phenomenological analytic method suggested by Giorgi(1970).

Result: Two essential themes in the self-esteem of relationships the elderly women emerged: (1) Self-identification through human relations: (2) The ability for self-control.

Conclusion: There is a variety of programs and social meetings to confirm self and support systems, whether on the governmental level or the personal level, to help the ability for self-control should be expected to live a more qualitative life and successful aging for elderly women. In addition, this study will offer a better understanding of elderly women within the social and cultural context of South Korea.

Key words : Elderly women, Self-esteem